

고려시기 경기지역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

윤 신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세와 공물, 부역에 의한 착취는 참으로 가혹하였습니다.》

봉건국가에서 인민들에 대한 착취의 주되는 형태는 전세와 공물, 부역이었다.

고려시기 경기지역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는 다른 그 어느 지역 인민들에 대한 착취보다 더 혹독하였다. 경기란 나라의 수도를 보위하고 유지하기 위해 수도 외곽지역에 설치한 특별구역을 말한다.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수도 개경의 주변에 위치하고있는 수십개의 고을들을 포괄하는 경기지역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지배와 봉건적착취를 다른 지방들에 비할바없이 강화하였다.

고려시기 경기의 일반주민들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하여 봉건국가의 기본착취항목과 함께 각종 특별부담을 많이 걸머짐으로써 5도량계의 주민들보다 더욱 비참한 처지에 있었다.

고려봉건국가는 무엇보다먼저 경기지역 인민들에 대한 전세수탈을 강화하였다.

고려봉건통치배들은 불임땅을 측량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량전사업을 자주 진행하여 토지에 대한 국가적인 장악을 강화하였다.

1041년(정종7년) 1월 고려봉건국가는 경기에 속한 장단현관내의 립진, 립강현 등지에서 토지면적의 다소와 기름진 정도의 차이가 고르지 못하다고 하면서 중앙에서 사신을 보내어 량전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 경리) 이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봉건통치배들은 이러한 량전사업을 통하여 전세징수에서의 《공정성》을 표방하였으나 그 본질은 토지에 대한 장악과 농민

대중에 대한 봉건적수탈을 더욱 강화하여 국고의 재정적수입을 늘이려는데 있었다.

봉건국가에서는 량전사업을 통하여 지난 시기 토지대장에 빠져있던 땅을 찾아내거나 농민들이 새로 개간한 땅들을 모조리 등록함으로써 보다 많은 전세를 수탈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량전사업을 통하여 논밭을 실지보다 넓게 그리고 비옥한 토지로 등록함으로써 전세수입을 최대한 늘일수 있게 되었다.

경기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세의 수탈이 매우 심하였다.

원래 경기에는 국가권력을 틀어쥔 관료들이 조상대대로 경영하는 토지가 집중되어 세전되었고 여기에 다시 관리들의 록과전이 설치되었으며 궁실과 공신들, 대관료들에게 임금이 각종 명목으로 주는 수사전, 사패지, 사급전 등 토지들도 많았던 것으로 하여 경기지역의 농민들은 다른 그 어느 지역의 농민들보다도 더 많은 전세를 수탈당하게 되었다.

특히 고려후반기에 경기지역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봉건통치배들사이의 대립과 쟁탈전이 극도에 달함으로써 한땅의 주인은 여러명으로 늘어났고 착취방법도 더욱 악랄해졌다.

1271년(원종12년) 2월 도병마사에서 《근래에 전쟁으로 창고들이 텅비어 관원들의 록봉도 부족되는 형편이므로 군인들을 고무할수 없으니 청컨대 경기 8현에 있는 토지를 품계에 따라서 록과전으로 주도록 하자.》고 건의하였으나 당시 여러 왕족들과 왕의 측근관료들이 비옥한 토지를 거의다 차지하고 여러 방면에서 이 건의를 저애하려 하였기때문에 왕이 동요하여 어찌지 못하였다. 1278년(충렬왕4년)에 록과전을 다시 개정하여 떼주었으나 다음해

2월에는 경기소속 고을들의 토지를 권세 있고 지위높은자들이 사패를 받아 각각 차지하고있으므로 도병마사에서 사패지도 직전으로 지급하도록 하자고 제의하여 왕도 이 제의를 승인했던것인데 사패를 받은자들의 청탁을 받고 다시 《공신들의 수사전으로서 경기 8현에 있는것들은 록과전에 충당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의 자료들을 통하여 왕족들과 왕의 측근관료들이 많은 토지를 독차지하였으며 이런자들의 토지쟁탈전을 최대의 권력자인 왕도 저지시킬수 없었다는것, 대봉건관료들이 경작중의 땅과 심지어 양반들에게 떼여준 토지까지 빼앗아가지고 국가에도 전세를 바치지 않으며 그 땅에서 나오는 리익을 독차지함으로써 한땅의 주인은 여러명이나 되고 경작민들은 2중, 3중의 전세를 수탈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수 있다.

전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봉건적 착취가 전례없이 강화되자 경기지역 인민들은 더는 살아갈수 없으므로 자기의 정든 고장을 떠나 류리하게 되었으며 봉건정부는 이를 막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여러가지 양보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기지역 인민들의 생활상고충을 풀어주는것처럼 하면서 저들의 반인민적인 수탈정책을 《공정성》으로 분칠하고 인민들의 반정부감정을 눅잠히며 그들의 투쟁을 미연에 막기 위한 회유기만극에 불과한것이였다.

고려봉건국가는 다음으로 경기지역 인민들에 대한 《공물》수탈을 강화하였다.

공물은 개별적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수탈하는 전세와는 달리 봉건국가가 주로 고을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내려먹이여 빼앗아갔다. 따라서 고을들에서는 자기 고을에 부과된 여러가지 종류의 공물을 값으로 환산하여 매 세대들에 나누어 부과하였고 주민들은 해당한 물품이나 또는 그 값

에 맞먹는 현물화폐를 바쳐야 하였다.

경기지역은 봉건왕실과 봉건정부가 있고 수많은 봉건관료들이 집중되어있는 수도와 가까이 있는 지역으로서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은 공물을 수탈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봉건사가들은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상을 은폐하고 후세에 전해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 이와 관련한 자료들을 거의나 기록하지 않았다. 그런것만큼 경기지역 인민들에게 부과한 공물착취에 대하여 전하는 자료도 매우 드물다.

《고려사》 권78 식화지 전제 공부 예종3년(1108년) 2월조에는 《경기의 고을들에서 상공외에 요역이 많고 무거워서 백성들이 이를 고통으로 여기여 날이 갈수록 점점 도망해가니 주관하는 관청에서는 그 공물, 부역의 다소에 대하여 해당 계수관들과 토의하고 적당히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할것이며 동, 철, 자기, 종이, 먹 등 잡소에서 바치고 별공으로 받는 물품의 내리눌림이 극도로 과중하므로 장인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도피하게 되었으니 해당 관청에서는 매개의 소들에서 바치는 별공, 상공물품의 다소를 적당히 제정하여 나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도록 하라.》는 왕의 명령을 전하고있다.

※ 상공(常貢)은 봉건국가에서 규정한 지방특산물을 정상적으로 바치는것이며 별공(別貢)은 상공외에 수시로 특별히 바치는 공물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경기지역 인민들은 상공과 별공의 형태로 공물착취를 당하였으며 그 부담과 고통이 날로 성하여 더는 견딜수 없기때문에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경기는 수도 가까이에 있는 지역으로서 다른 고을들에서 지는 공물을 부담하면서도 그밖에 왕실과 중앙통치기관들에서 일

상적으로 쓰는 남새, 과일, 물고기, 마초, 뽕나무, 숯, 얼음, 소금 등 여러가지 잡다한 물품들을 수시로 착취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고 국왕의 순찰과 사냥시에 그를 따라다니는 봉건관료들, 호위군사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물자들을 보장하여야 하였으며 각종 제사, 불교행사 등에 허비되는 물자들도 바쳐야 하였다. 또한 왕궁, 루정, 중앙관청, 무덤, 절간, 도성 등 건설에 필요한 목재, 석재, 칠감들도 다른 지방들에 대비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착취당하였다.

공물을 통한 가혹한 수탈은 경기지역 농민들과 수공업자들로 하여금 많은 생산물들을 생산하고도 그것을 자기들의 향유물로 만들지 못하고 언제나 헐벗고 굶주리게 하였으며 이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국 농업생산과 수공업생산의 발전을 가로막았다.

고려봉건국가는 다음으로 경기지역 인민들에 대한 부역을 강화하였다.

봉건사회에서 인민들에게 부과한 부역 착취의 대표적인 내용은 궁전과 절간건축, 관청건설, 무덤건설, 성 쌓기공사, 도로담기 등 각종 토목공사와 물자운반, 경비근무, 국왕의 사냥놀이시 짐승몰이 등이었다.

경기지역 인민들은 우선 궁전건설에 때없이 동원되어 혹사당하였다.

봉건국가에서는 최대의 권력자이며 착취자인 국왕의 위엄을 시위하고 왕실의 호화롭고 부화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왕궁건설을 중시하였으며 수도와 그 주변지역의 인민들은 물론 전국의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크고 웅장한 왕궁들을 많이 건설하였다.

《고려사》에 보이는 왕궁건설 및 수리와 관련한 자료는 30여회에 달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고려의 역대 국왕들중에서 왕궁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왕은 의종왕이었다. 의종은 집권기간(1147-1170년)에 대궐동쪽

에 리궁을 건설하고 수덕궁으로, 전각은 천녕전으로 명칭을 붙이였으며 또 시종 왕충의 저택을 안창궁으로, 전 참지정사 김정순의 집을 정화궁으로, 평장사 유필의 저택을 련창궁으로, 추밀원부사 김거공의 저택을 서풍궁으로 만들었다. 그 외에 민가 50여채를 헐어내고 태평정을 짓고 태자에게 명령하여 현판을 쓰게 하였다. 그리고 그 정자 주위에는 유명한 화초와 진귀한 과수 나무를 심었으며 이상스럽고 화려한 물품들을 좌우에 진렬하고 정자남쪽에 못을 파고 거기에 관란정을 세웠다. 그 북쪽에는 양이정을 신축하여 청기와를 이었고 그 남쪽에는 양화정을 지어 종려나무로 지붕을 이었으며 또 옥돌을 다듬어 환희대와 미성대를 쌓고 기암괴석을 모아 신선산을 만든 다음 먼곳에서 물을 끌어 폭포를 만들었는데 더할나위 없이 사치하고 화려하였다. 또한 평장사 문공원의 저택을 사서 순어소(왕이 순행하다가 립시 휴식하는 곳)로 삼았으며 이밖에도 수덕궁을 증축하고 정합의 저택을 경명궁으로 만들었고 백주의 별궁, 영은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의 집을 빼앗아 증축수리한 별궁, 성화동 별궁, 양제동 별궁, 봉향리 별궁 등 수많은 별궁들을 도처에 만들어놓았다. 게다가 측근자들은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민간에 진귀한 물건이 보이기만 하면 왕명이라는 핑계로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가리지 않고 이를 탈취하여 저마다 실어들이었는데 그런 집짜이 길에 잇대였으므로 백성들은 이것을 몹시 괴롭게 여기었다.*

* 《고려사》 권18 세가 의종2

25대 충렬왕은 1279년 3월 죽판동의 민가 300여호를 철거시키고 거기에 새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대략 4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였으며 다음해에 장공인들이 《3년동안 고역에 시달려 하루도 쉬지 못하였으니 처자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겠는가. 지금 농번기가 되었으니 집으로 돌

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애걸하였으나 허락하지 않고 계속 왕궁을 건설하도록 강요하였다.*

* 《고려사》 권29 세가 충렬왕2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의 강요에 따라 왕궁건설에 동원된 경기지역 인민들 속에서는 얼어죽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공사에 동원된 역부로서 죽은 사람들이 길에 련달려있을 정도였다.*

* 《고려사》 권16 세가 인종9년 6월, 권28 세가 충렬왕2년, 권44 세가 공민왕23년 6월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고려봉건통치배들이 왕궁을 얼마나 요란하고 사치하게 건설하였으며 또 얼마나 강행적으로 진행하였는가 그리고 이에 동원된 인민들의 처지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데 대하여 잘 알수 있다.

경기지역 인민들은 또한 수도와 그 주변에 있는 수십개의 절간건설에 동원되어 혹심한 부역착취를 당하였다.

고려시기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불교가 가장 성행하던 시기였다. 고려의 력대 국왕들과 통치배들의 불교장려정책으로 하여 당시 개경에는 왕궁과 그 위용을 견줄 정도로 호화로운 절간들이 60~70개나 있었다.

고려시기에 건설된 절간들은 삼국시거나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건설한 절간들보다 그 규모가 방대하고 큰것이 특징이다. 절간들에는 레외없이 불상, 불탑, 불종 등을 갖추어놓았다.

수도 개경에 건설된 모든 절간들과 불교시설들은 주로 수도와 경기지역 인민들의 부역로동과 그들의 재물을 강압적으로 빼앗아 건설하거나 갖추어놓았다. 결국 경기지역 인민들의 피와 땀, 값비싼 대가로 불교절간들이 건설되고 유지운영되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919년 1월 개경에 도읍을 옮기고 법왕사, 왕륜사, 자운사, 천선

사, 원통사, 저장사 등 10여개의 절간을 건설하였으며 921년에는 오관산에 대흥사를, 922년에는 왕명사를, 924년에는 외제석원, 구요당, 신중원을, 936년에는 중광사, 현성사, 미륵사, 사천왕사를, 940년에는 개태사를 건설하였다.

4대왕이었던 광종은 951년에 대봉은사를 도성남쪽에 세워 태조의 원당으로 삼았으며 불일사를 개경 동쪽 교외에 세워 죽은 어머니 류씨의 원당으로 삼았다. 그리고 954년에는 숭선사를 세워 죽은 어머니의 명복을 빌게 하였고 963년 7월에는 귀법사를, 968년에는 유암사, 삼귀사 등 수많은 사원들을 창설하였다.*¹ 8대왕이었던 현종은 반거란전쟁의 후파로 인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련락되었고 거기에 잡다한 인적, 물적착취가 덧씌워져 민생은 도탄에 빠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012년부터 1032년까지 중광사건설을 강행적으로 추진시켜나갔다.*² 11대왕이었던 문종은 1051년에 중흥사, 대안사, 대운사건설공사를 벌여놓고 장공인들과 농민들을 밤낮으로 내몰았다. 이로하여 음식을 날라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안해, 공사장으로 가는 자식들이 길에 잇대였으며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겹쳐 식량을 대지 못함으로써 로력을 감당할수 없는 형편이었으나*³ 봄, 여름 이후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강압적으로 내려먹이였으며 이때부터 량반귀족들과 관료, 토호들까지도 경쟁적으로 도처에 절간을 짓고 래세의 안락과 현세의 복을 빌었는데 이로 하여 경기지역 인민들은 끊임 없는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 2, 3} 《고려사》 권2 세가 광종, 권5 세가 현종18년 9월, 권7 세가 문종5년 4월

이 시기에 벌어진 가장 큰 사원공사는 흥왕사건설공사였다. 경기지방의 한개현(풍덕)을 통채로 들어내고 2 800간에 달하는

건물을 세우는 홍왕사건설은 1055년부터 시작하여 무려 13년간의 공사끝에 1067년에 완성되었다. 공사에 끌려나온 인민들은 매일 고역에 시달려 쓰러지고 지쳐서 죽었으며 도망하는 사람이 많아 모자라는 인부를 계속 징발하였다. 건설자재도 많이 소비되어 그 수요를 충당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황해도에서 병기제조에 쓰던 철까지 홍왕사건설에 돌리게 하였으며 목재를 탐라(제주도)에서까지 끌어들었는데 목재를 운반하는 인부들의 피로가 극도에 달하여 더 계속하면 사변이 일어날것이라고 관료들이 아우성치는 형편이었다. 그후에도 홍왕사를 둘러막는 성벽을 쌓고 금탑, 돌탑을 만들어놓는 등 건설공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고려사》 권8 세가 문종12년 8월 32년 7월

경기지역 인민들은 또한 성건설, 관청건설, 도로건설 등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혹심한 부역착취를 당하였다.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황성, 궁성, 외성(라성), 내성 등의 성이 축성되었는데 황성과 궁성은 개경에 수도를 정하면서 축조하였고 외성은 1009년부터 1029년 사이에 쌓았으며 내성은 고려말인 1391년에 착공하여 조선봉건왕조초에 완공되었다.

외성은 둘레가 2만 9 700보(약 55리)이고 4개의 대문과 8개의 중문, 13개의 소문을 가진 성인데 21년동안 무려 30만 4 400명의 장정을 동원하여 건설하였으며 황성은 둘레가 1만 660보이고 높이 27척, 두께 12척, 성문이 20개, 행랑이 4 910간이나 되는 성으로서 23만 8 938명의 장정과 8 450명의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구축하였다는 자료(《고려사》 권56 지리지 왕경개성부)를 통해서 당시의 성공사가 얼마나 방대한 규모로 벌어졌으며 봉건국가의 부역착취가 얼마나 혹독하게 진행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고려봉건통치배들은 도성을 새로 건설하는데만 그친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파괴되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진행한다고 하면서 경기일대의 백성들을 때없이 동원하였으며 몽골침략자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강화천도를 단행하고 강화의 중성과 승천부의 백마산성을 수축하는 등 도성수축사업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수도 개경에는 최고정부기관인 3성(광평성, 내봉성, 내의성)과 순군부, 병부, 내군부, 창부, 의형대, 도향사, 물장성, 레빈성, 삼사, 내천부, 진각성, 원봉성, 백서성, 광문원과 같은 중앙통치기관들의 청사건물들과 순천관, 영빈관, 오빈관, 회선관, 회동관(영화관), 청하관, 조종관, 인은관(선빈관), 영인관, 선은관, 영선관, 령은관, 홍위관과 같은 전문적인 외국인숙소들이 자기의 위용을 자랑하며 곳곳에 자리잡고있었는데 이 모든 건물들은 대체로 수도와 경기지역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건설한것들이었다.

고려봉건국가의 력대 국왕들과 왕실세력들은 지방순찰, 사냥, 온천목욕, 약수치료, 병피접 등을 구실로 지방행차를 자주 진행하였는데 그때마다 순행구간의 도로와 다리들을 새로 닦거나 보수하였다. 이러한 도로닦기와 다리건설에도 경기지역 인민들은 다른 그 어느 지역 인민들보다 더 많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경기지역에 대한 왕의 행차가 제일 많았을뿐 아니라 수도를 벗어나 지방에 대한 행차를 하려고 하여도 꼭 경기지역을 통과하여야 하였기때문이다.

이러한 성축조 및 보수공사, 관청건물공사, 도로닦기와 교량건설 등에 동원된 백성들은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해야 하였으며 공사기간에 사용할로동도구, 마소는 물론 먹고 입고 쓰고 살 모든것도 다 자체로 부담하여야 하였다.

경기지역 인민들은 이밖에도 물자운반,

국왕과 왕실세력의 행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부역로동, 국왕의 사냥놀이시 짐승물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역에 끌려나가 무상로동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려봉건국가는 전세, 공물, 부역뿐 아니라 고리대착취도 강화하였다.

봉건국가의 전문적인 고리대기관인 장생고는 더 말할것도 없고 개경에 있던 국가중앙창고들인 좌창, 우창, 룡문창, 신흥창을 비롯하여 중앙과 지방의 국가창고들에서도 인민들로부터 수탈한 량곡과 베천을 가지고 여러가지 형태의 고리대착취를 감행하였다. 또한 국왕의 사적인 재정기관인 내장택과 왕의 자식들과 첩들의 생활보장기관인 여러 원들에서도 고리대를 감행하였다. 이들은 가혹한 봉건적수탈로 말미암아 사경에 처한 인민들의 곤난한 처지를 리용하여 얼마간의 쌀과 베천을 꾸어주고는 엄청나게

높은 리자를 붙여 악착하게 빼앗아갔다. 지어는 국가권력을 리용하여 썩거나 나쁜 쌀을 강제로 가져가도록 강요하거나 때로는 꾸어주지도 않고 높은 리자를 붙여 강제로 좋은 쌀을 략탈해가는 경우도 있었다.*

* 《고려사》 권79 식화지 차대

경기지역의 인민들은 봉건왕실과 통치기관들, 통치배들이 집중되어있는 수도 주변에 살고있는것으로 하여 전세, 공물, 부역 등 봉건적착취를 다른 그 어느 지역의 인민들보다 더 혹독하게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같이 봉건국가의 전세, 공물, 부역착취는 인민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끊임없이 파산몰락시키는 기본착취형태였으며 전세, 공물, 부역착취의 강화로 하여 경기지역 인민들은 자기의 정든 고장에서 더는 살지 못하고 할수없이 류랑의 길에 오르게 되었던것이다.